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강사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09.09. (月)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p>과일에 바쳐진 국기색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p> <p>저항력 향상</p> <p>시력향상, 항암효과, 포도씨로부터 효과적</p> <p>냉장보관, 수일 안에 먹는 것이 좋음</p> <p>강아지도 포도를 먹으면 큰일난다</p> <p>포도를 먹을 때 씨까지 먹으면 좋다</p>	<p>포도 : 사과, 수박 등 여름철 대표 과일</p> <p>포도에 다양한 영양소</p> <p>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유기산</p> <p>비타민C, 포도당 등 함유</p> <p>당도 높고 당분 함량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음</p> <p>흰 분이 많은 수확 많다</p> <p>농약이 잘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고온에 노출시켜 줄기나 잎을 잘라준다</p> <p>씨에 과일의 생산량의 33% 차지 → 포도의 영양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음</p>	<p>강아지가 포도를 다 먹으면 큰일난다</p> <p>이유를 더 알아질 바란다</p> <p>포도 - 우리나라에서 포도를 생산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나 포도를 먹을 때 주의할 점 등을 알려줄 바란다</p> <p>개인들이 포도에 대해 더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p>	
느낀점	<p>이미 알고 있는 사실, 새로 알게 된 것을 정리해보면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평소 포도를 많이 먹고 있는 아내에게 포도의 효능을 알려주면서 포도가 아직도 좋은 수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포도의 영향으로 포도가 씨에 과일의 생산량의 33%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당혹하게 느껴졌고 시장 상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도 과일이라 포도 씨에 좋은 것이 있는데 과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생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섭취를 피하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금기가 생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가짜 포도를 가리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강아지가 포도를 다 먹으면 큰일난다는 말을 듣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강아지를 위해서 많은 생명이 원치 않게 되었다.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도를 우리에게 선물 가장 친숙한 과일 중 하나라고도 모르는 사실이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놀라웠다. 효과적인 보관 방법이나 주의를 점령해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 보니 말이다. 포도를 판매할 때 포도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 점들을 알려주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이번 시간처럼 개인들이 포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p>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노혜빈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 9. 9 .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비타민 함량이 높다. 제철 7월 31일 ~ 8월 31일 포도당 함유되어 있다. 시력을 향상시키고 피로회복을 도와준다. 냉장 보관 및 4일 안에 먹는 것이 좋음. 기초음에 항균기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 자주 먹는 품종이 캠벨 만리이다. 당뇨병 환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항암효과가 있다. (특히 포도 씨에 많이 함량) 껍질에 하얀 분이 많을수록 달다. 포도 껍질에서 먼 부분은 먹지 않고 보고 고르기 강아지는 포도로 먹으면 큰일난다.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주고 단기간 제타 같이 포도 축제 같은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시장에서 사면은 혜택을 주는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느낀점	<p>포도가 달달했다. 여진이가 발표를 잘 준비한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느꼈고 포도에 대해 그러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게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고 이번기회를 통해 더 다양 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앞에나가서 발표를 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다음에도 또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더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해야겠다.</p>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권혜원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09.09 .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여름철 과일 포도당, 비타민C 함유 냉장보관 껍질이 몸에 좋음 당이 높음 강아지에게 좋지 않음	· 포도에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음 · 캠벨 알리 · 머스켓 베일지 · 제철 : 8월 (여름) · 효능 - 시력향상 - 항암효과 - 피로회복 · 주의 - 당뇨병 환자 주의 · 보관법 - 봉지채로 냉장보관 - 4일 안에 먹기 · 맛있는 포도 고르기 - 끝에 갈수록 시어짐 → 끝의 포도 먹어 보기 · 포도는 과일 생산량 33% · 강아지에게 위험	포도 껍질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두꺼워서 먹기 꺼려 지니까 조금만 <u>얇은 껍질의 포도가 나왔으면</u> 좋겠다.	
느낀점	우리지역 농산물인 포도에 대해 이렇게 제대로 생각해보고 알아본 적이 처음이었다. 맛있다고 마냥 먹기만 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설명을 들을 수록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나와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던 양이나 라는 생각을 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맛있는 포도를 고르는 방법이었다. 끝으로 갈수록 시어지니까 끝부분의 포도를 먹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다. 앞으로 포도를 먹을때 끝부분부터 먹게 될 것 같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포도를 먹어보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다. 다음의 우리지역 농산물은 무엇일지 기대가 된다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2212 윤이빈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 9. 9.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 제철 = 한여름 포도에 당이 많이 있어서 당도병 환자가 심하지는 않더라. 안토시아닌이 신박하게 좋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미얀마를 만드는 주재원이 많더라. 포도의 껍질이 포도주, 포도주로 약해서 좋더라. (너무 귀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다 ↳ 북미에 많이 있음 포도의 껍질, 항암효과도 있음 포도의 껍질 포장: 포도의 당을 날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 포도껍질은 건강 (겉에 흰색 가루 = 당, 영양X) 세계 과일 생산량의 33%이 포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인 머니 (매리넷이 바나나) 가 굉장히 비싼데 사먹으면 좋겠다 (포도껍질은 리드... 될 리드...) 매리넷은 포도껍질 껍질 다른 과일 맛 나는 포도가 개발되었다면 좋겠다. 새로운 품종은 포도가 나오면 좋겠다. 아기 5월경 출생.
느낀점	<p>포도에 포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었다. 포도는 그냥 당도만 높고 달달한 과일만 알고 있었는데 생선도 많은 걸 알게 되었다. 특히 항암효과도 도움이 되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다. 나는 껍질도 껍질로 써먹기 위한 과일을 좋아한다. 특히 사과 같은 먹이 때문에 껍질까지 먹어야 한다. 그나마 이번 배를 타고 직접 포도를 먹으면서 껍질과 씨를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포도 껍질도 양분이 많고 껍질과 씨에 있다면서, 그래서 먹기 힘든 것일까? 원래 몸에 좋다고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렇게 하나 두개 먹다보니 껍질과 씨까지 먹으면 포도가 생각보다 먹기 편하고 맛있더라. 쉬운 과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상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좀 더 맛있는 것이 개발되면 포도를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특히 껍질과 씨를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포도 껍질도 양분이 많고 껍질과 씨에 있다면서, 그래서 먹기 힘든 것일까? 원래 몸에 좋다고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렇게 하나 두개 먹다보니 껍질과 씨까지 먹으면 포도가 생각보다 먹기 편하고 맛있더라. 쉬운 과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상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좀 더 맛있는 것이 개발되면 포도를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특히 껍질과 씨를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p>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이나현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 9. 9 .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p>포도 종류가 많다. 반례가 많이 꼬인다. 흰 게 물이 있는 게 맛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여름에 많이 먹는다. 새나깅깅이 좋은 생미 더 좋다.</p>	<p>안호시아선, 플라보노이드, 유가산, 비타민 디포도당 등이 많이 들어있다.</p> <p>포도 (한자어) 포도의 품종은 다양하다. 우리가 아는 포도는 캠벨 딸리 저명: 1월 키와 2월 키 일(한자어) 안호시아선 - 국을 끓여만든다. 플라보노이드 - 노란빛을 내면 감색빛, 항암효과에 좋고, 씨에 많다. 포도당 - 많이 먹으면 귀찮아진다. 4인 양에 먹기, 색깔이 선명하게 맛있는 포도. 먹보색을 먹으면 맛을 향수 있다.</p>	<p>색깔이 다양하게 색 나왔으면 좋겠다. 장류가 익힌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른 제철미도 항상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깅깅라 씨로 많은 사람들이 거북장식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강아지를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분뿐만 아니라 일반포도도 씨가 있는 포도이면 좋겠다.</p>	
	강아지는 포도를 먹으면 문질란다.			
느낀점	<p>원래 포도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서 포도에 대해 알게된 것들이 많아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농부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서 발표하게 되고 알게된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 하니깐 더 열심히, 자세하게 들게 되었다. 내가 future에 쓴 내용들이 아예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Already known을 쓰면서 내가 포도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p> <p>오늘 한 체험이 재미있어서 다음 우리 지역 농산물들로 기대가 된다.</p> <p>그래도 내가 3월 포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발표로 열심히 들어야겠다.</p>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국 소 리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 9. 9.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p>새콤달콤 맛있다.</p> <p>포도 { 개봉 등등... 정포도.</p> <p>몸에 좋다. (워가 있는지는 모른다...)</p> <p>눈에 좋다.</p> <p>포도 도, 포도 포 포! 도! (올라개도 한자어다.)</p>	<p>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 장과이다. (과육에 수분 9, 연조직으로 된 과일)</p> <p>사력향상.</p> <p>강압효과 (플라보노이드).</p> <p>하얀 분이 있는데 제일 달다!</p> <p>골로 갈수록 시어진다.</p> <p>세계 과일 생산량의 약 33% 를 차지한다.</p> <p>강아지에게 포도를 먹이면 중독증세를 유발한다.</p>	<p>포도의 단점은 줄이고 (그대봤자 신개. 그것도 비타민 내부에 좋지만, 그리고 당)</p> <p>강점을 늘려 (이용할 곳이 많은 것.)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포도 생산자가 되어. 값싸고 맛좋은 포도를 먹게 되었으면 좋겠다.</p>	
느낀점	<p>단지 포도는 맛있고 달콤한 과일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알던 포도는 포도도 아니었다. 포도에 눈이 좋아지게 만드는게 있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효능을 가진 성분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포도가 '장과'의 한 종류임을 알았다. 여기서 장과란 과육에 수분이 많고 연조직으로 둘러싸인 과일인데, 예시로는 토마토가 있다. 아,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포도 끝에 묻어있는 하얀색 분이 몸에 좋은 성분이란 것 알았다. 평소에 부먹이 손을 주거나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몇번 없는데. 하얀 덕분에 포도는 세계 과일 생산량의 약 33%나 차지한다고 해서 놀랐다. 여기서 인생에서 통째로 맛이 없으면 안되나보다.</p> <p>사실 이렇게 과일에 대해 조사하고 과일은 먹는다는 얘길 들은 적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여성으로 정만 재미있는 모르는 사실과 식물안팎의 부분 까지 알게되며 또한 이렇게 미래에 관한 내용과 상상속까지 쓰니 포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과일에 대해 알게 되게 된 것 같아 매우 좋다.</p> <p>다음에! 맛있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즐기겠습니다!</p>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안소연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 9. 9.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제철: 7/31 ~ 8/31 수분이 많고 비타민 C가 많다. 끝은 짭쪼름, 시원하다.	<p>품종: 캠벨얼리, 마스켓 베일리, 블랙 콰터크, 달카워키 등 (보통 우리가 먹는 것은 캠벨얼리)</p> <p>수익점: 당함유량 15%이기 때문에 당도병한자는 팔지 않은 것이 좋다.</p> <p>향미: 시적향상, 향양화, 파르티복.</p> <p>* 하얀분이 많을수록 좋다.</p> <p>세계 과일 생산량의 약 33%, 가아지는 포도 품종이 제일</p>		<p>* 시적향상, 향양화, 파르티복의 효능을 이용하여 약품을 개발한다.</p> <p>예) 파르티복제, ... 등.</p> <p>* 당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있게 연구한다.</p>

느낀점

내가 몰랐던 점을 새로 알고 먹어서 그런가 몸이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다. 화한하게 내 활동했던 몸이 팔팔해지고 괜히 더 평소에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 생각보다 포도가 되게 큼지막해서 다 먹지는 못했지만 포도의 종류가 저렇게나 다양하다는 거, 또 당도병 한자가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 하얀 분이 평소에 무시하고 닥아먹었는데 안좋은 것이 아니라 '당'이 그렇게 된 거라는 것.

또 제일 생각했던 두가지! 꽃향처럼

세계 과일 생산량의 약 33% 라는 것과 가아지는 포도를 먹으면 큰코 곤다는 사실까지 많은 새로운 점을 알게되어서 새롭다. 솔직히, 과일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먹었으니까만 먹었는데..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되고 또 특히, 마에에 대해 생각하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상상해보니까 아이디어 생각나고! 여기까지 마를 쓰는 활동을 해서 좋게만있었다

↳ 진짜 좋은듯.
 (두려움!!)
 (종말이 어쩔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송예진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 9. 9.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포도는 여름철에 먹는다. 씨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다. 씨에 좋은성분이있어 먹으면 좋다.	안토시아닌이라는성분이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암효과에 좋은 씨에있는성분이다. 포도당은 피로회복에 좋지만 많이섭취할경우, 당뇨병환자 에게는 좋지않을수있다. 포도에 껍질째를 씹어 키우는이유는 바나나를 막고 당뇨병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피로함을 빨리느끼는 사람에게 포도를 추천한다. 그리고 포도를 선택할 때 색이 선명하고 껍질부분에 흰반이 많이 묻어있는것은 선택하는것이 좋다. 그 흰반은 당을 의미하여 많은수록 포도가 달다.	
느낀점	포도를 직접 먹어보았는데 제철과일이라서 그런지 더욱 달고 맛있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니 믿음이 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다. 우리지역농산물체험의 첫번째 농산물이 된것에 너무 맛있고 만족스러워서 다음농산물은 무엇일까,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된다. 당이가득한 과일에 때문에 피로하고 당이 떨어졌음을 느꼈을 때 마다 사탕보다는 포도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포도를 섭취하지는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김희옥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유 호은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9.9.(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p>포도는 과즙이 많은 과일.</p> <p>여름에 나는 과일.</p> <p>단 과일.</p>	<p>포도: 라육뿐만이 두껍고 연한 껍질로 씹어먹는 열매.</p> <p>제철: 7/31 ~ 8/31 (한여름)</p> <p>우리가 잘 아는 포도의 품종은 '캠벨얼리'</p> <p>명양호: 안토시아닌 (시력향상)</p> <p>플라보노이드 (항암효과)</p> <p>유기산 비타민C 포도당 } 피로회복</p> <p>맛있는 포도 고르는 법.</p> <p>포도 씨 제거 방법 33%</p>	<p>· 와인산업 발달</p> <p>· 포도 다른 과일을 압한 융합적인 과일 생산</p>	
느낀점	<p>포도는 껍질과 씨가 있기 싫어서 귀찮아 잘 먹지 않았던 과일이다.</p> <p>오늘 1학년 학생의 발표를 듣고 포도에 시력을 좋게해주는 안토시아닌, 항암효과를 내주는 플라보노이드,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유기산, 비타민C, 포도당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p> <p>평소 포도도 맛있는 것을 고르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맛있는 포도는 알이 꽉차고 흰부분이 많아야 달다고 한다. 나도 여태까지 포도의 흰부분이 농약인줄 알았지만, 포도에는 당이 많아서 그런거라고 한다. 또, 끝쪽포도를 먹어보고 단 것을 고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 포도를 씨바르기 귀찮다고 먹지 않았던 내가 새삼스러워진다. 씨와 껍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하니 이제 껍질과 씨까지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1인당 한송이의 포도를 주셔서 씨와 껍질 같이 먹어보았지만 역시 쉽지는 않았다.</p>			

우리 지역 농산물 체험 소감록

활동	지역농산물체험		참가자	이유정
장소	시청각실		일시	2019. 9. 9. (월)
우리지역 농산물 포도	Already Known	New Knowledge	Future	
	포도는 포도껍데에 포도도색 쓰고 비타민 C가 많고 당분이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토시아닌 : 포도나 블루베리에 있는 영양소 - 포도에 풍부한 영양소: 안토시아닌, 비타민 C - 강아지는 포도를 먹으면 중독증세를 일으킨다 - 맛있는 포도고르는 법: 알이 꽉찬, 껍질이 새겨나온 과일 봄이 많은수록 달다 - 포도의 품종: 캠벨얼리, 	유정준 박사가 만든 씨 없는 수박이 있듯이 씨 없는 포도를 만들었다면 좋겠다. 포도를 자주 즐겨먹는 편이 아닌데 그 이유가 씨를 발라먹기 귀찮아서이다. 씨를 안먹는 사람들도 많이 때문에 귀찮게 변형해서 씨 없는 포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느낀점	<p>평소에 귀찮아해서 과일을 먹지 않는 편이었는데 지역농산물 체험으로 인해 치킨이나 피자 같은 몸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과일은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패스트푸드는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복당이 되는데 포도와 같은 과일은 많이 먹어도 복당이 될 리서 좋았던 것 같다.</p> <p>그리고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치킨이었다면 유혹은 참지 못하고 먹었는데 포도여서 절제하지 않아도 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평소에 먹을 때 껍질과 씨를 다 발라먹는데 이번엔 같이 먹었다니 내몸에 비타민 C가 쌓이는 것 같았다.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였는데 사실인 것 같았다.</p>			